

건강 칼럼

No Japan,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은 하수의 양쪽 독에 있는 경우성과 자녀 생이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날이 있다. 사람들은 이날을 아름다운 사람이기라 기억하지만, 나에게 칠월칠석은 비통하고 슬픈 날이다.

1593년 음력 7월 7일(선조 26년), 진주성을 함락한 왜군의 지축 술판에서 논개는 왜장 개야무라 르쿠스케를 축서루 아래로 유인해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몸을 던졌다.

나라를 침략당하고 지아비를 잃은 원통함에 일본에 맞서 민들레처럼 끈질기게 살다간 그녀의 인생이 서러워 칠석이 다가올 때 좁이던 마음 한 편이 무겁다.

올해는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았는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36년간 남의 나라를 빼앗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온갖 수탈을 일삼은 나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고도 '한국 파워'에게 향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장 영 수

장수군수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일본이다. 정치·경제·역사·문화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일본의 사과를 받은 것이 있는가? 현재 일본은 고작 돈 몇 푼 배상했다며 되레 적 반하장의 태도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지극히 정치적으로 선연적인 대응만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큰 마찰이 생길 때마다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해 '노재팬(No Japan)' 운동 불이 일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었으나 2021년, 적자를 기록하던 일본의 유니클로는 다시 흑자로 전환됐고, 이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노재팬'은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역사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장수군은 예부터 의(義)의 고장으로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민족대표를 지낸 백용성 조사와 우리말을 지켜낸 정인승 박사, 그리고 왜병과 맞서 싸워 순국한 많은 의병장 등을 배출해 왔다.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에게 가슴

을 잡히는 모욕을 당하자 자신의 가슴을 칼로 베어 그들의 얼굴에 뿌리며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들아! 것이 욕심나거든 이것을 들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크게 외치며 자결한 장수 계남면 오씨 부인, 그리고 머나먼 타향 진주의 남강 푸른 물에 왜장을 꺼안고 의롭게 죽은 주논개의 충절과 애국정신을 다시 돌이킬 때다.

우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사용하면서도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관용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표시하고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올림픽을 개회했다.

일본의 민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장수군은 일본에 저항하고 순국한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다시 한번 장수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넘어서 선열들의 유지를 받들고 명예를 지켜야 한다.

다시 시작이다. 노 재팬!

사설

군산 배달의 명수

군산시의 배달서비스 앱 '배달의 명수'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서비스 앱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주름잡던 호남 고교 야구의 패자로 있던 9회 말 역전 우승으로 이름을 날린 군산상고의 별칭에서 따온 공공 배달서비스 앱이다.

당초 배달의 명수는 군산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기업체의 도움을 받아 올 3월 출시됐다. 전국 최초로 '수료 없는 공공 앱'이 등장한 것이다.

전국적인 관심을 끈 것은 출시하고 나서 얼마 후였다. '배달의 명수' 출시 이후 일부 가게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외국계 독점 민간 배달 업체에 맞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공공 어플을 통해 사업주와 소비자간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군산지역 소비경

제의 모델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달의 명수는 올 3월 출시 이후 4개월 동안 가입자 10만 시대를 열었다.

3월 말 1만8804명에서 4월 말 9만135명, 5월 말 9만8655명, 6월 말 10만2128명 등으로 불과 4개월 만에 급성장했다. 오는 9월쯤이면 11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은 1,019개소에 달했다. 할인 혜택 가맹점 수는 할인쿠폰 106개소, 무료배송 178개소, 리뷰이벤트 129개소 등이다. 전체 주문 건수는 11만 707건에 달했고 누적 매출액은 26억 4100여만 원에 이른다.

상품권이 5만 9,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 4만 5,877건, 현금 5,812건 등의 순이다. 배달의 명수가 앞으로도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운동 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중독 확대 적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부동산 투기용으로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 등 1,056명이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가운데 무려 51.2%인 122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52만2,065㎡로 시가(時價) 19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기초단체장은 223명 중 52.4%인 117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은 818명 중 46.8%인 383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199만4,176㎡(199.4ha), 시가(時價) 921억 8,000만 원에 달

한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망국병(亡國病)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실제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진즉 무너졌다.

사회 지도층의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한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농사를 짓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탁 경영 여부는 물론 농지 소유 기준 초과 여부, 그리고 소유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농지법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해야 할 때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지법 개정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연합 훈련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병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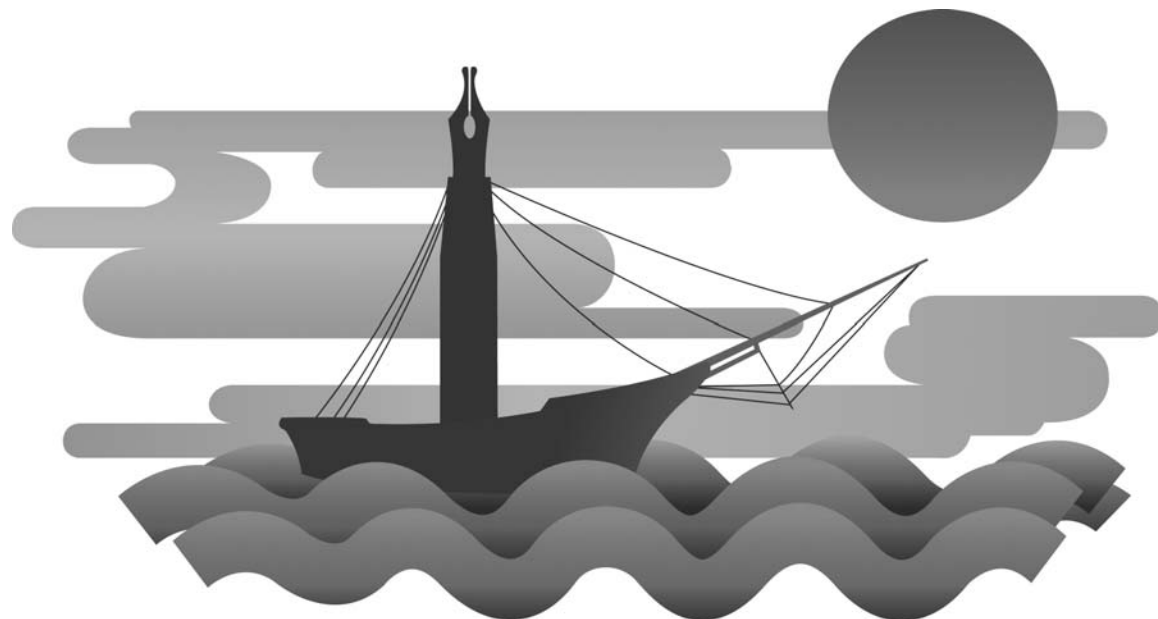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병사들이 10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접경 지역인 히르브-미이돈 훈련장에서 러시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연합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합 훈련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일주일간 계속된 이번 훈련에는 각국 병사 2500여 명과 차량 등 5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정부 대책과 지원 요구하는 파라과이 시위대



10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에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 원주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정부에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구하며 관공서로 행진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